

성당 소식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이임 미사 및 환송식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의 이임 미사가 지난 주일 (1월 8일) 오전 10시에 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임 미사와 환송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인 공동체와 미국 공동체 교우 2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사 중 감사 꽃다발과 영적/물질 예물 전달식이 있었고, 성가대에서 준비한 환송곡, Ministry Associate, Joe Cullinan과 채희백 바오로 평협회장님의 환송사가 차례로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지난 5년 동안 주임사제로 지내면서 느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미사 후 진행된 환송식 행사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신부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Our Lady of Mercy 성당 내 한인/미국 두 공동체의 일치와 발전을 위해 5년간 헌신하신 신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기도합니다.

이임미사와 함께 5년간의 소임을 마치신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앞으로 대전교구 세종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제 1보좌 신부님으로서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연중
제 2 주일
2023년
01월 1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스도의 세례>, 1472-1475 @ 우피치 미술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49,3,5-6
- # 화답송 시편 40(39),27ㄴ과 47ㄴ,7-8ㄴ,8ㄴ-9,10(◎ 8ㄴ과 9ㄴ)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1,1-3
- # 복음 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 복음 요한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 성가 입당 22 봉헌 216 성체 160 파견 31

미사지향 (연미사)

- 백운택(어거스틴) 신부님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씬머셋 구역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이한영 - 오용운(토마스 아퀴나스)
- 김영섭 - 이윤경(비르지다)
- 이승훈(바오로), John Lee - 유명기(베네딕도)

미사지향 (생미사)

- 김홍철(베다) 신부님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 박재영(요아킴)
- 하준석(마태오) - 박재영(요아킴)
- 김영필(안토니오), 김종화(아가다) - 대자
- 이용문(안드레아), 신수정(크리스티나) 가정 - 오용운(토마스 아퀴나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241명 - KCC 174명/OLM 67명).....	\$1,662
• 2차 헌금 (유틸리티).....	\$727
• 교무금.....	\$1,600
오용덕(1-2) 박재영(1-2) 채희백(1-2)	
이호용(1) 배인호(1-6) 서경호(1-2)	
이용문(1) 염기선(1)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곽 율리안나



2차 헌금

- 1월 22일: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Collection (메타천 교구내 초등학교~고등학교 학비 지원)

2023년 1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1월 22일(주일)은 설날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1월 15일(일) 미사 후 친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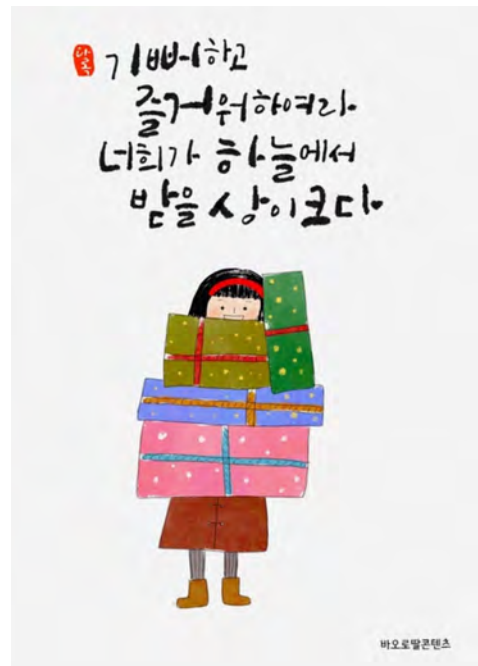
릿거스 구역 모임

- 일시: 1월 21일(토) 오후 1시
- 장소: 한철희 필립보 형제님 댁

2022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바오로딸 성경 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 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접수: 바오로딸 성경학교 홈페이지 (<https://uus.pauline.or.kr/>)
- 마감: 2023년1월 31일
-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제 1독서 이사야서49,3,5-6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1-3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1,29-34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 1.32)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어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과 같이 사제는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하고 외칩니다. 성찬에 초대받아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어린양을 알렸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을 받아 모십니다. 복 자체이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받아 모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기억하여 행하여라”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에 자리할 것입니다.

- 이승현 대건안드레아 신부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바라보고 받아 모시고 있습니까?
2. 하느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